FOCUS

폐레미콘 건설폐기물에 준해 처리 가능

지난 7월 22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레미콘 제조업체의 폐레미콘 발생에 대한 재활용 및 건설폐기물에 준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레미콘 제조업체에 경비절감의 큰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회원사가 레미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레미콘과 건설현장에서 회차된 폐레미콘의 처리에 큰 고심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에 폐레미콘을 파쇄 분리 성토재,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지난 4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된바 있다.

또한 기존의 폐레미콘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함에 경비 부담이 커 이를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 7월 개정으로 업계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처리할 때 보다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때의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그동안 레미콘 제조업체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폐레미콘의 재활용 및 처리시 건설폐기물에 준해 처리할 수 있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폐레미콘의 재활용시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신고를 득해야 하고 도로공사시 성토재, 복토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제품은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므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중 주요내용중 '별표 4 제4호 가목 (2)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제품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레미콘제조업체의 폐레미콘의 처리가 수월해 졌다.

초음파로 콘크리트 균열여부 파악

최근 일본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진단에 초음파로 균열여부를 알수 있는 장비가

선보였다.

일본야마구찌대학이 초음파로 콘크리트 내부균열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 지금까지는 콘크리트에 충격을 준 뒤 발생하는 소리로 검사했으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들어왔다. 초음파 센서 · 증폭기 · 컴퓨터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내부균열이 있는 곳에 부딪친 초음파의 파형이 되돌아오면서 달라지는 점을 이용했다. 반사된 초음파를 분석해 균열위치와 정도등을 알아낸다고 한다.

시멘트 품질시험 실시

서울 · 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국내 7대 시멘트 제조사의 시멘트 품질시험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요업술원에 의뢰하였다.

콘크리트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의 강도시험을 조사한 결과 현대시멘트가 28일 강도 403kgf/㎠을 기록하여 강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멘트사의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레미콘업체에서는 시멘트 품질에 대한 구매기준을 시멘트사의 자체 시험성적서에만 의존해 사용해 왔었다.

시멘트의 품질시험 결과에 따르면 동양, 쌍용, 성신, 아세아, 한라, 한일, 현대등 7대 메이커 시멘트사의 품질은 모두가 KS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압축강도는 지난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시멘트가 지난해 보다 73kgf/㎠ 향상된 403kgf/㎠ 동양, 쌍용 등도 지난해 보다 37~38kgf/㎠ 높아지는등 10%이상의 강도 증진을 보여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평균 388kgf/㎠로 나타나 지난해 비해 평균 9.9%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멘트 품질시험은 요업기술원의 품질시험외에 시멘트사의 자체시험성적서와 시멘트업체와 레미콘사의 합동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양회업체가 주장하는 시멘트 품질을 공식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시멘트사와 레미콘사의 새로운 수요공급의 체계를 갖출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시멘트사의 품질시험결과가 포장시멘트를 그 대상으로 한 바, 이번 조합의 시멘트 품질시험은 레미콘공장에 반입되는 벌크시멘트를 현장에서 채취 시험했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품질시험은 화학성분 및 물리성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압축강도를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지난해 시험성적서 보다 품질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내 시멘트의 강도가 전년대비 향상됨에따라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보다 원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합은 금년 하반기 수출용시멘트와 일본산 시멘트의 샘플을 수거, 내수용과 비교시험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레미콘믹서트럭 드럼 보온덮개 실용신안 대상 아니다

지난해 대구지역 김모씨가 특허출원한 실용신안 제0154008호 '레미콘차의 혼합통 보온구' 의 권리를 내세우며, 현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부직포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 했다며, 대구, 경북지역을 중점적으로 경고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업계관계자는 성토하였다.

실지로 실용신안권과 관련한 변리사 상담결과 일반 부직포와 실용신안 출원제품인 HI-Q TANK와는 형태 및 구성요소가 다르며, 실용신안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또한 특허청에 문의한 결과 일반 부직포를 95년 9월 이전 실용신안등록을 하려하였으나 실용신안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고 실용신안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 실용신안권자의 경고장 발송이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이자 근본적으로 대처키 위하여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변리사를 통한 '실용신안 무효심판청구' 와 아울러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실용신안 출원일 이전에 일반 부직포가 먼저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중 일부 거래명세서가 있는 업체도 있고 또한 출원 이전 광고 카다록이나 보도자료가 있으면 연합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향후 레미콘제조업체에 이와 같은 경고장이 접수될 경우 7일이내에 답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답변서의 내용을 다음 예시한 형태로 작성 발송하도록 하였다.

유가인상에 따른 레미콘 제조업체 운반비 부담 증가

국제유가가 새천년 들어 9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내 모든 제조업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수 신 :
발 신 :

제목 : 실용신안 침해에 대한 답변서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먼저 본인은 귀하가 제작 · 판매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 제0154008호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거나 유사 또는 동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레미콘차의 혼합통 보온구"는 귀하가 출원시 밝혔듯이 외피와 내피사이에 보온재가 내장된 보온구로써 상하양분을한 다음 각각 양측면에 있는 다수의 결박고리를 통해 착탈가능케 한 구조를 가진 것입니다.

4. 그러나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단순한 드럼덮개는 귀하가 출원하기전 전국적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귀하의 실용신안 청구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외피와 내피사이에 보온재를 가진 구조가 아니고 일반 천으로 드럼을 싸고 있어 풀어해쳤을때 어떠한 형태를 띠지 못하므로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는 두 번 다시 본인에게 귀하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고 만약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시에는 모든 민사 · 형사상의 책임은 귀하가 지시게 됨을 밝혀 두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9월 일

발송인 성명 : (인)
주 소 :

지금 세계는 산유국들의 산유량을 제한하는 가운데 가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가 폭등으로 차량운전자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 역시 유가상승분을 부담하게 되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전기료, 기타 2차제품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일반 소비자 물가까지 들썩거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과 차량5부제 운행등 각고의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가계부담 및 제조업체의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970년대초 1980년대초 오일쇼크이후 지난 90년 걸프전 보다 상승해 9월 현재 배럴당 35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유가상승 행진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자체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전량을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의 국제유가 추이가 주목된다.

레미콘제조업체에서는 그동안 경영수지가 나아지지 않은 가운데 유가 인상으로 인한 제조단가 인상, 운반비 상승 등이 우려되며, 향후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시멘트산업 장기적 남북경협 가능성

지난 9월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15남북공동 선언에서 나온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서해안공단 및 금강산 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 미국 일본 등 서방기업의 대북진출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시멘트산업의 중장기적 남북경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관계 연구원은 시멘트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공장건설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라고 전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시의 건설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남북한 합작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위해 현장기술의 지도, 노후시설의 개체를 통한 가동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개발이 시작되면 동부지역의 순천, 상원, 해주시멘트 공장이 유명하지만 수송이 어려워 수송이 쉬운 남포항, 해주항 등이 인접한 인천항으로의 운송이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멘트 산업은 물류비가 높고 공해 유발의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으로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말 시멘트부문의 남북교역실적은 9만톤 2천619만2천달러로 총교역액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며, 95년까지의 반입액이 1천765만2천달러로 6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

(단위 : 만톤)

구 분	1965년	1975년	1985년	1995년	1999년
남 한	174.7	1,119.6	2,522.1	5,600.0	6,168.7
북 한	239.0	520.0	904.0	1,202.0	1,202.0
남한/북한	0.7배	2.2배	2.8배	4.7배	5.1배

자료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한국은행(2000. 6. 20), '북한 GDP추정결과'

주) 남한의 생산능력은 클링커 기준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인터넷으로 확인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15일부터 건설기술자와 건설관련업체의 편익증진을 위해 전국 각급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서비스는 발주청에서 건설기술자의 건설공사 참여경력, 보유기술자격 및 건설관련업

체의 보유기술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 ·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발주청에서 전면적으로 활용할 경우 건설기술자 및 건설관련업체는 증명서 발급에 따른 직접비용과 기관방문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간접비용등 연간 총1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발주청에서도 입찰시 마다 건설관련업체에서 제출하는 기술자 경력증명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업 체감경기 악화

지난 9월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4분기 건설업 전망 BSI(기업경기 실사지수) 결과에서 6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 매출액 15억원이상 법인 건설업체 280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BSI 100을 넘을 경우 전분기에 비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다.

건설업에 있어 BSI는 지난 2/4분기를 고비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부문별로 매출증가율 BSI의 경우 3/4분기 실적치가 73으로 당초 전망치 92를 크게 밑돌고 있는데다 4/4분기의 전망치는 이보다 낮은 70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출증가율 BSI가 크게 낮아진 원인으로 신규공사 수주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물량 축소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채산성 전망 BSI도 66으로 3/4분기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고용 BSI는 103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 전망 BSI는 107로 나타나 상승세는 이어지지만 상승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했다.

건설업체 부도율 높아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여파로 건설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2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중 부도건설업체(당좌거래 정지업체기준)는 86개사로 전월 88개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부도건설업체는 모두 690개사로 월평균 86개사 하루평균 3개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도업체수가 늘어난 것은 업체수는 크게 증가한데 비해 공사물량은 늘지않고 있으며, 시중자금 경색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부도 건설업체수가 전월에 비해 2개사가 줄었지만 전체 부도업체에서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체들의 부도율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설경기와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건설업체 부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크게 줄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골재 채취도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는 지난 9월 22일 공유수면에서 광물 · 골재 등을 채취하는 경우 연간채취량도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추가된다고 밝혔으며, 이 내용이 포함된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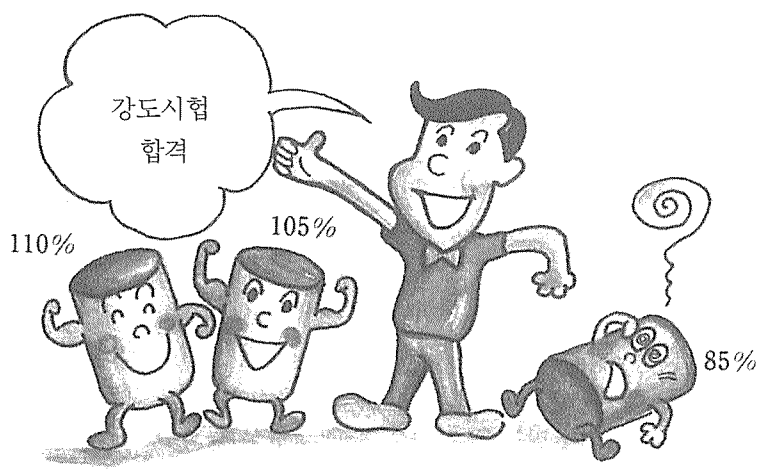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환경평가 대상사업중 공유수면에서 광물 · 골재 등을 채취하는 경우 채취면적 외에 연간채취량을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추가키로 하고 대상규모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난개발로 인한 홍수피해사례가 늘어 재해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규모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50미만인 사업이나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재협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재협의대상중 평가서협의기관장이 현지여건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협의절차의 일부생략 등 약식평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주민의견 수렴시 지역주민 이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업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강도판정은 3개의 평균치로